

<제1회 디아코니아 포럼>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 사회복지

- 일시_ 2017. 7. 7(금) 14시
- 장소_ 종교교회
- 주최_ 한국교회봉사단 디아코니아 포럼

■ ■ ■ ■ 순서

1부 | 예배

인도_ 김진수 교수 (포럼 운영위원)

설교_ 최이우 목사 (포럼 지도위원장)

격려의 말씀/축도_ 손인웅 목사 (상임고문)

광고_ 천영철 목사 (사무총장)

2부 | 세미나

주제_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사회복지

사회_ 김동배 교수 (포럼 회장)

발제_ 김한호 목사 (춘천동부교회) / p5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 사회복지”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로 대안을 찾는 목회현장)

토론_ 1. 김성철 교수 (백석대 보건복지대학원) / p25
교회연합 봉사사업에 관한 제언

2. 최소연 교수 (남서울대학교) / p29
향후 엑스포 영역별 세미나 준비에 관한 제언

3. 이승열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 p33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발전 방향에 관한 제언

한국교회 위기와 기독교 사회복지

-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로 대안을 찾는 목회현장 -

김한호 목사

춘천동부교회 담임목사, 서울 장신대 디아코니아 연구소장

I. 들어가는 말

II. 한국교회의 위기

1. 내부적 요인
2. 외부적 요인

III.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와 기독교 사회복지와의 관계

1.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
2. 디아코니아와 기독교 사회복지와의 관계

IV.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로 대안을 찾는 목회현장 (춘천동부교회 중심으로)

1. 디아코니아를 통한 한국교회의 내부적 대안
2. 디아코니아를 통한 한국교회의 외부적 대안

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 안에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지만, 근세조선 이후 기독교 사상이 유입되면서 디아코니아 정신이 담겨져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도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직적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활동이 바로 1903년 외국의 신문화 도입과 직업교육 전개에 주력한 YMCA활동이다. 그리고 1921년 선교사인 메리 마이어스(Mary D. Myers)는 태화기독교여자관에서 여성계몽 및 교육, 아동보건의 사업을 실시했고, 1934년 기독교조선감리회 평양애린원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빈민과 직업여성, 아동의 복지를 위한 사업 등을 사회복지관 형태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교회는 봉사를 통한 사회참여에 중점을 둔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과 교회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진 목회를 하고 있었기에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

은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교회의 명칭을 가지고 봉사를 하지 않았을 뿐 대외적으로 의료선교와 교육선교, 그리고 고아원,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부분적인 사업들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특별한 명칭을 가지고 봉사하지 않았던 이유는 근본주의적 경향이 강했던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이웃을 위한 봉사보다는 복음전파를 통한 영혼구원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교회는 급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사회정의와 봉사보다 양적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교회는 사회로터 점점 멀어져갔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이미지 회복을 위해 뒤늦게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봉사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섬김이자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를 구비하지 않은 채, 사회봉사를 교회 성장의 한 도구로 인식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들을 초래하게 되었다.

본 글은 사회봉사를 교회 성장의 한 도구로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섬김의 정신이자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를 '기독교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통해 소개한다. 또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디아코니아 사역을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춘천동부교회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론 본 글은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목회적 범위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무장된 교회가 지역 사회 속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한국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국교회 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한국교회의 위기

오늘날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잘못된 목회방향으로 인해 교회 안에 예배가 무너지고, 설교 중심의 계급화된 직분역할, 섬김의 자세를 상실한 성만찬 등의 교회다움을 상실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등의 사회적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 필자는 이러한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목회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1. 내부적 요인

1) 예배(직제와 성만찬 중심으로)

이제 열린예배, 찬양예배,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예배의 형식이 자유로워지고 다양해졌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예배가 그리스도의 삶을 직접 배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결단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모든 요소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통한 결단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장을 마련하고 실제로 체험하게 하며 구체적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 즉 사회적 섬김과 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예배를 교회 공동체가 직접 보여주어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그렇지 못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현실을 볼 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교회의 권위적

인 모습과 섬김의 상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 말할 수 있다.

(1) 직제의 문제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가장 뿌리깊게 자리잡은 마음이 있다. 바로 직제, 즉 직분의식이다. 이러한 직분의식으로 말미암아 교회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초기 기독교의 예수제자 공동체는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공동체 안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 즉 집사라는 직무를 세웠다. 하지만 콘스탄틴 황제 이후 시대부터 감독과 사제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수직적 위계 질서화가 되어갔다. 그로 인해 평신도 지도력인 집사 직무가 쇠퇴되어 오다가 마침내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주의 아래서 교회의 집사 직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로 들어서면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안에 사라진 집사 직무를 회복시킴으로서 교회의 직제와 예배를 개혁하였고, 특히 개신교회 안에서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회가 인준하는 집사 직무를 회복함으로 교회헌법과 통일적인 시스템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았다.

역사적 과정은 이러하나 과연 현대 한국교회에서의 직제와 그 안에서의 집사 직무는 어떠한가? 한국교회 안에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계급화되어 있고 고백성과 전문성을 가진 직분자로서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별히 이러한 계급적 직분의식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설교이다. 한국교회가 설교를 통한 말씀 선포에 중점을 두다 보니, 목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설교자로서 목사의 역할이 다른 직제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상위에 위치하였다.

교회의 섬김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한국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교회 안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봉사가 단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시혜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바로 모든 봉사활동이 섬기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 계급적 역할과 권리에 치중되어 있는 한국교회 직분 의식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교회 설교자의 위치와 교회의 권위적인 섬김의 모습이 현재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성만찬의 문제

한국교회 안에서 성만찬은 교회의 거룩한 예배행위이며,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다. 교회는 이 성례를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최고의 행위로 생각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과 성만찬을 바르게 선포하는 곳이 교회라는 신앙을 가졌으며, 이것이 신앙적 전통으로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성만찬에는 권의의식이 없고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있었다. 누군가 권위를 가지고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성만찬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권위주의적인 섬김의 성만찬은 초대교회로부터 볼 수 있다.

초대교회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있다. 바로 ‘공동식사’이다. 주의 만찬의 자리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공동체에서 뿌리를 찾는다. 둘 사이에는 하나의 줄기로 흐를 수 있는 맥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눔의 식탁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면 성만찬에 대해 권위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신비화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성만찬으로 인해 한국 교회 안에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회상하는 예전으로 지켜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초대교회의 온전한 성만찬 정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만찬은 예전과 먹고 마심의

공동식사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야 한다. 즉, '코이노니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이노니아의 회복은 곧 초대교회에서 '아가페 식사'라는 뜻으로 사용된 'Agape Meal'이라 불리웠던 사랑의 식사의 회복이라 말할 수 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가페 식사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찬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 가난과 배고픔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고 예수님은 식사를 통해 그들과 연결 다리를 만드셨다. 결국 예수님이 시작한 식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통합적 성만찬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코이노니아와 섬김의 섬김이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성만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2) 부정적인 교회의 목회방향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부정적인 목회 방향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3가지의 목회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는 사회봉사를 교회의 성장이나 선교의 도구로 이해하거나 이를 직분자의 일로만 한정해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실천하는 섬김과 봉사는 그 출발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동기가 신앙인의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돌보는 것인지, 아니면 개신교의 교세가 성장 둔화되어 가기 때문에 교세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회적 약자 돌봄이 교회의 본질적인 접근이 아닌 교회의 성장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교회가 이와 같은 동기로부터 약자를 돌보려는 움직임을 시작한 것에 대한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이는 돌봄의 주체들인 지역교회 간에, 교단과 교파 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종교간에 경쟁심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기에 관한 문제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감추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한국교회는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로, 당회 운영에 있어서의 갈등의 문제이다. 한국교회 당회의 분위기는 교회마다 다르다. 그것은 각 교회의 전통과 당회장의 리더십, 또한 당회원들의 성향, 교단과 교파의 직제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회 안에는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한다. 때로는 자신의 주장만을 피력하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목회적 방향성에 공감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듣는 당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당회가 하나님 나라 건설과 복음 전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당회원간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이 당회 운영에 절실히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연대화 협력의 부재이다. 교회는 자신이 위치한 지역을 살리는 운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의 눈에 비친 교회는 서로 경쟁과 무분별한 교회확장 등으로 지역 안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쟁과 개별 성장이 아니라 연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단독적인 봉사를 하기 쉬운데 지역 봉사단체와 타 교회와의 연합한 사역을 통해 더욱 큰일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연대를 말할 때 소형교회들이 자연스레 대형교회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디아코니아는 중대형교회들과 소형교회들과의 평등 관계로서의 연대를 추구한다. 작은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작은 교회들과 나란히 연대를 추구

하면서 각 교회가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대의 범위를 정부 및 민간단체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는 교회 공동체의 봉사와 일반 봉사와의 구분을 허물자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일방적인 수혜 차원으로서의 지역봉사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이다. 다방면의 포괄적인 봉사, 잘못된 사회구조와 시스템의 개혁 등과 같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부와의 연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외부적 요인

1) 한국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한국교회는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그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저출산에 대한 위기이다. 한국교회 안에 이미 1980년대부터 교회학교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교회학교가 존재하지도 않는 교회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은 층보다는 죽음이 가까운 고령층에서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한국사회는 노년 세대에서 종교성이 한층 높게 나타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한국교회와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한국교회 안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장기화는 향후 사회뿐 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줄어들면 그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둔 30-40대 장년들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되면 교회는 점점 노쇠해짐으로 말미암아 헌금이 줄어들면서 결국 급격한 교회의 고령화로 인해 교회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위기 속에 놓여져 있다. 이대로 가면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목회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사회적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 이들을 통해 한국교회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금주, 금연, 정직, 봉사를 하는 공동체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기독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외면한 채 종교답지 않은 모습을 내세우고, 목회자의 도덕적 타락, 세속화, 이기적인 자세 등 현재 교회의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야기한 한국교회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이라고 본다. 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 해야 할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외면하는 것을 넘어선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들은 비기독교인들과의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재 한국교회는 자기 모습에 대한 자기반성과 교회 내부적 개혁, 그리고 사회에 비쳐진 교회의 이미지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Ⅲ.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와 기독교 사회복지와의 관계

한국 교회는 내부적 외부적 위기 속에 미래의 전망이 어둡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회복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때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섬김’ 곧 ‘디아코니아’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는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이처럼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공생하며 나아갈 때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다움의 회복을 통한 완성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인 ‘기독교사회복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와 기독교 사회복지와의 관계는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

1) 전문성과 고백성

독일의 디아코니아는 1996년까지 줄곧 성장하여 왔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함께 디아코니아는 통일 이후 점점 정체상태에 빠지면서 몇 가지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꼽아 본다면, 디아코니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성은 있는데 고백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독일 디아코니아 시스템을 살펴보면 관리 경영진은 거의 교회, 종교청 대표들인데, 전문성을 요구하는 디아코니아 현장 실무자들과 신앙고백을 중요시하는 디아코니아 관리 경영자들 사이의 분쟁과 마찰이 크다. 반면에 한국교회는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신앙의 열정만 보더라도 고백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를 분석해 보면, 한국교회의 고백성은 개교회적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약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안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섬김의 전통이 있고, 교회 내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으며, 목회자의 자세가 디아코니아적이라는 장점도 많다. 국민 중 사분의 일이 기독교인이며, 남을 돕는 국민성이 있다. 체계적, 논리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뜨거워지면 열심히 이웃을 돕는다.

초대교회는 그냥 열정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초대교회가 사람을 뽑을 때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인가? “지혜와 성령”, 즉 전문성과 고백성이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떡을 나누어 주는 일, 모든 사역을 디아코니아라고 말한다. 어떤 사역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두가 동일한 사역이다. 일찍이 초대교회는 이를 알았기에 전문적으로 떡을 나누는 사역과 말씀과 기도사역 모두 고백성의 토대 위에 평등하게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 즉 전문성과 고백성이 균형 잡힐 때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성장했다는 점을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고백성은 종교성과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종교성은 더 높은 것에 대한 인간의 종교적 욕구나 감정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고백성, 즉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영광 교제 하는 것을 말한다.¹⁾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분의 생각이 신앙으로 얻어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이것은 성령에 의하여 인간에게 인도된다. 신앙인들이 바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고백성이 회복된다. 이러한 고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돌봄의 대상인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이다.

1) 김옥순, 『디아코니아학 입문』, (서울: 한들출판사, 2010), p. 62.

일찍이 스톡홀름 대회(1925년)에서 교회는 편협한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 우주적 본질과 형제적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음으로 전문성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²⁾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디아코니아를 신학 현장에서조차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들의 전문성도 현저히 떨어진다. 더욱이 사회복지와 디아코니아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혼용되어, 목회자나 교회가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디아코니아로 둔갑해 버리는 실정이다. 고백성이 편협한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인 것처럼 보다 광대한(보편적) 영역으로까지 나아가고, 그것에 전문성까지 겸비한다면 참다운 디아코니아의 실천이 한국교회 목회 현장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둘이 조화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는 좋은 디아코니아 목회 모델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 자원봉사자와 디아코노스

1) 자원봉사자

자원 봉사를 뜻하는 영어 '발룬티어 워크(Volunteer Work)'는 '자유 의지'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볼룬타스(Voluntas)'에서 유래되었으며, 영어로 자원 봉사 활동이 지니고 있는 정신을 '발룬타리즘(Voluntarism)', 자원 봉사자를 '발룬티어(Volunteer)'라고 부른다. 즉, 자원 봉사는 자발적인 의지로 남을 돕는 것을 말한다. 자원 봉사(自願奉仕)의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스스로 自', '바랄 願', '받들 奉', '섬길 仕'로서, 이는 곧 '스스로 원해서 남을 받들고 섬김'이란 뜻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받드는'과 '섬기는'이라는 말이다. 즉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을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받드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 봉사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의 강요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남을 위해 또는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자원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무보수로 행하는 활동이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선교사들에 의해 봉사와 연결되어 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 등 사회봉사를 시작으로 선교하였다.³⁾ 교회를 비롯하여 종교기관 및 자원 봉사 기관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 우리나라에 현대적 의미의 자원 봉사 활동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근세조선 이후 기독교사상의 유입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1903년 신문화 수입과 직업교육 전개에 주력한 YMCA 활동을, 조직을 통한 최초의 자원 봉사 활동으로 들 수 있다. 그 후 1921년 선교사인 메리 마이어스(Mary D. Myers)에 의해 태화기독교 여자관에서 실시한 여성계몽 및 교육, 아동보건사업, 1934년 기독교조선감리회 평양애린원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빈민과 직업여성, 아동의 복지를 위한 사업 등을 사회복지관 형태로 실시된 자원 봉사 활동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관을 통해 교육되고 현장에서 섬기는 자원 봉사자들이 있었기에,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한국 전쟁, 현대 사회 건설이 가능했다. 그러다가 2005년 6월 30일 자원 봉사활동법 제정을 시작으로 제 1차 자원 봉사 활동 국가기본계획 수립(2008년-2012년)을 하였고 자원 봉사활동 국제 교류 활성화 추진에도 힘을 내고 있다. 특히, 2007년 충남 태안군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의 처리과정 중에 보여주었던 한국교회의 자원 봉사자들의 모습은 세계에 큰 감동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고, 기존의 자원

2) Michael Kinnamon and Brian E. Cope, ed., *The Ecumenical Movement - An Anthology of Key Texts and Voices* (Geneva: WCC Publication, 1997), pp. 265-267.

3) 이만열, 『한국기독교 특강』(서울: 성경읽기사, 1996), pp. 91-116.

봉사자의 모습을 한 단계 상승시켰다고 할 수 있다.

자원 봉사자에게는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 그리고 지속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부족한 정보력, 불분명한 공익성의 기준, 일시적이거나 영웅 주의적, 자기만족을 위한 자원 봉사자의 태도는 향후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교회에서도 자원 봉사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나누는 것,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무조건 인간애를 앞세우는 태도가 아니라 자원 봉사의 바른 정신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제는 성경적인 원리와 기준을 가진 자원 봉사자, 즉 디아코노스를 훈련하고 양육할 때이다.

2) 디아코노스

그리스어 디아코니아(diakonia)는 어원 그대로 '식탁에서 시중드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명사형이 나오는데, 이는 디아코노스(diakonos), 즉 '시중드는 자'이다. 이는 신약성서에 29번 나오는데, 대체로 바울서신에 많이 나오는데, 이는 사역자(고전3:5), 일꾼(롬16:1; 고후3:6; 6:4; 11:15,23; 엡3:7; 6:21; 골1:7,23; 딤후4:6)으로 번역되어 있다.⁴⁾ 빌립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Diakonos(시중드는 자)'와 'Doulos(종)'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디아코노스가 동사로 사용될 때, 진정한 자유함에서 나오는 섬김, 이것이 '디아코네오'이다. 무조건 선택의 자유 없이 섬기는 것은 노예(douleia)를 의미하는 '둘류오'이다. 이는 '종노릇하다'(롬 6:6, 갈 4:8-9, 갈 5:13, 딤후 3:3), '수고하다'(빌 2:22)로 번역할 수 있다. 예수는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될 분이 종으로 살아간 것이다. 이것이 섬김의 모습이다. 디아코노스를 이해하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디아코노스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동기에서 자원 봉사를 한다. 종교적 배경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박애정신, 시민 참여정신, 자발적 동기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 '자발성'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원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흔히 디아코니아를 자기희생적,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나 신앙심 좋은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착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시간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가진다. 그러나 디아코노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봉사자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내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한다. 그렇기에 디아코니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활동, 착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이 디아코니아이다.

2. 디아코니아와 기독교 사회복지와의 관계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것을 의미하는 디아코니아는 일반적으로 '섬김'으로 번역되어진다.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이 사회적 책임 하에 이루어져 국민들의 행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이념이 "사회복지"라고 말할 때,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적 이념을 통하

4) 박동현,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93회 총회 주제해설 “섬겨야 합니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pp. 9-19.

여 사회복지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교회와 사회의 관계는 목회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며, 이는 신학의 한 분과인 디아코니아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디아코니아, 섬김의 현장은 교회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더욱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할 수 있기에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디아코니아학은 더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 양자의 관계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디아코니아학의 입장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디아코니아와 사회가 만나는 지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아코니아와 사회복지의 근본정신에 대해서는, 이 둘이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에서부터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양태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복지의 70%를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교회의 디아코니아와 사회복지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여러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봉사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의 강요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남을 위해 또는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자원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행하는 활동을 뜻한다. 반면에 디아코니아,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닮아가는 것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동시에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 것인지 보여주셨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디아코니아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봉사란 무엇인가? 기독교 사회복지의 일반 사회복지와 달리 기독교의 본질을 통하여 이 땅에 사회복지를 이루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회복지의 결국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의 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하는 행위인 것이다.

디아코니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돌이켜 볼 때, 그분은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고, 이 세상을 전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셨음에 분명하나 이 세상의 약한 자들,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삶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고백에 투철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와 다르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이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이들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들과 더불어 일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목회 현장을 살펴보면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사회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피상적인 봉사에 머물러있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지 못한 다든지, 아니면 사회가 교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어 교회와 사회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기도 한다. 고백성이란 세상이 말하는 종교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벗어난 배타주의도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인정하고, 세상과 같아지자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고백은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성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거룩성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디아코니아는 악에 저항하고 악에 물든 사회구조에 저항하거나 맞서며, 궁핍에 처한 자들을 돕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를 이루려는 창조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⁵⁾ 교회의 디아코니아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5) WCC 정의, 디아코니아, 포괄적 공동체국과 선교와 전도국의 주관 하에 2012년 6월 콜롬보에서 열린 신학협의회에서 채택된 문서

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⁶⁾ 사회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피해야만 할 곳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디아코니아를 실천할 때 그것은 가능하다는 인식전환이 목회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된다. 마태복음 25장 31-3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감추어져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작은 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도움을 주는 자일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자로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디아코니아를 목회현장에서 단지 사회 윤리로 이해하고 혹은 사회복지의 실행으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이고, 교회의 사역만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 디아코니아는 교회 내의 사역과 더불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만일 세상이 도와달라고 부르면 교회는 세상으로 가야한다. 그것은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도 이 땅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마 25:31).⁷⁾

목회자들은 먼 해외 지역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을 선교 현장으로 인식하고, 교파를 초월한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지역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디아코니아를 실천해야 한다.⁸⁾ 부당한 사회 구조의 변화는 개교회의 일회적인 봉사를 통해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교회들이 연합하여 또는 교회와 사회가 연합하여 지속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고백에 투철한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섬김으로 방향 짓고, 이 세상 속에 거하나 세상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회와 교회, 교회와 사회가 연합하여 지속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교회 목회 현장에 절실히 요청된다.

IV.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로 대안을 찾는 목회 현장 (춘천동부교회 중심으로)

춘천동부교회는 디아코니아를 수단이 아닌 목회의 근본정신으로서 받아들이며 일반적인 봉사의 영역뿐만 아니라 예배와 교육, 교회 운영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디아코니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역이 전문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디아코니아 학교를 필두로 디아코노스 양성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디아코니아를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을 교회 안팎으로 교인들에게 마련해 주고 있다.

예배는 성서의 본래 정신에 따라 디아코니아적으로 드러지고, 특히 새벽 예배를 강조함으로써 고백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디아코니아 사역이 이뤄지도록 교회는 힘쓰고 있다. 또한, 신학교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교회는 신학교를 후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현장의 경험을 제공하고, 디아코니아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며, 학술 대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춘천동부교회에는 전국적으로 총회, 노회, 개 교회, 신학교, 각 기독교 기관 및 단체가 방문하여 목회의 본질로서 디아코니아를 소개하고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디아코니아 사역

6) Michael Kinnamon and Brian E. Cope, ed., op. cit., pp. 446-447.

7) 김한호, 『장애인과 함께하는 디아코니아』, (서울: 한장연, 2009), pp. 27-28.

8) 한국일, “선교와 디아코니아,” 『춘천동부교회 디아코니아 세미나 2013 자료집』, (춘천: 춘천동부교회, 2013), p. 16.

이 이뤄지는 현장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우리교회는 디아코니아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디아코니아의 저변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다음은 춘천동부교회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디아코니아 사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디아코니아를 통한 한국교회의 내부적 대안

1) 예배

(1) 직제 문제에 관한 대안

영어 단어 “liturgy”는 그리스어 레이투르기아(*leitourgia*)에서 유래되었다. 번역하면 “사람의 일”이라는 뜻이다. 넓은 의미에서 “예전”(禮典)은 사람들이 어떤 주어진 예배의 과정에서 수행하는 것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원 문맥 안에서 레이트루기아는 지방자치 당국의 시민직원이 지역사회를 섬긴 공공봉사였다. 서비스라는 말은 본래 그리스어로 사용된 의미를 이해하는 핵심단어이다. 사실 이것은 “봉사”로 번역될 수 있으며 우리가 예배를 “worship service”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레이트루기아는 신약에서 자주 사용된 용어다. 이는 공(公)예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다양한 행동을 가리킬 때 여러 번 사용된 단어이다.⁹⁾

유대교의 전통 안에 있던 초기 신약시대의 예배 속에서 예수님은 기존의 예배 신학, 예배 형태를 재해석하셨다. 이는 기존의 제의적이고 율법적인 형태의 예배를 관계 중심적 예배로 변화시킨 것이다. 즉, 예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사람을 도우며 치료하기를 원하셨다.¹⁰⁾ 예를 들어 당시 안식일 법은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고, 그 날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로 지켜졌지만 예수는 배고픈 자를 먹이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막 2:27)라고 말씀하시며 기존의 예배의 관습을 깨뜨리셨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육체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치유까지 포함하는 전인적 치유사역이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한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신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것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장소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베데스다라는 의미는 자비의 집, 친절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자비가 없고 친절이 없었다. 선착순의 논리와 경쟁의 법칙, 약속강식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곳이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기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 시대 상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 안식일이라는 시간이 더해지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굳어있던 예배에 대한 의식과 시대적 상황, 육체적 질병의 굴레를 갱신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사역이 되었다. 이렇듯 예수님이 인식하신 예배는 전인적 치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같이 한 곳,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받아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¹¹⁾ 이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같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에는 식사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 신분의 높고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있는 식사의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 특히 죄인이라고 치부되었던 이

9) Constance M. cherry, *The Special Service Worship Architect* (Michigan, MI: Baker Academic, 2013), 17.

10) Jürgen Roloff, 김한호 역, “예배와 성만찬의 디아코니아적인 차원과 의미” 『디아코니아와 성서』 (서울: 한들출판사, 2013), 282.

11) 위의 책, 284.

들과 함께 했고, 따라서 그 자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었다.

이러한 치유와 식사와 모티브는 디아코니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래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의 기본형은 디아코네인(diakonein: 섬기다)이다. 이는 예수께서 식탁에서 섬기는 분으로 자신을 밝히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나, 지극히 낮아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더욱이 그 시대에 소외받고 정죄당한 이들을 초대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고 섬기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정신이 예배 속에 녹아져 있고, 그래서 디아코니아의 관점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섬김, 봉사이면서 동시에 회중들을 섬기는 행위이며, 나아가 시대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이들이 초대되고 중심에 서며, 회복되는 자리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¹²⁾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탈권위주의적 직제 안에서 행하는 참된 예배이다. 이러한 예배는 예배와 섬김이 하나임을 인식하며 나아가기에 계급화되고 있는 직분의식이 사라지고, 목회자의 설교 또한 낮고 소외된 사람들 중심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다. 직분의 권위를 내려놓고 디아코니아 정신, 즉 섬김의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춘천동부교회는 이와 같이 예배와 섬김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또한 환경이나 장애인 같은 디아코니아적인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우리교회의 장애인 통합 예배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예배’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예배의 중심에 서서 예배하며, 그들을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예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예배의 기획에서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디아코니아부서, 장애인 담당자, 지역의 장애인학교 교사 등과 협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예배의 중심에서 장애를 경험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그 결과 교회 내 장애인들과 지역의 장애인 학교와 연계하여 예배 순서를 구성하고, 장애를 가진 목회자를 초빙하여 설교를 진행하였다. 후속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장애인들의 필요를 조사하고 각 개인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디아코니아 활동을 연계하도록 진행하였다. 예배 중 청각과 언어의 장애를 가진 복합장애인 고등부 학생이 기도를 맡았다. 기도는 수화로 했는데 이는 비장애인에게는 매우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광고시간에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과 아멘은 어떻게 수화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을 미리 교육했다. 통합 예배에 필요한 배려로서 수화통역서비스와 점자성경찬송을 비치함으로써 차별과 소외가 없도록 조치했다. 그러자 장애로 인해 예배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이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감격하며 기뻐했고, 예배에 참여했던 농아인 학교와 재활교회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타났다. 장애인 예배는 장애인과 함께 예배드리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 사역자가 예배 진행과 말씀 증거를 담당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교회 내에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 이를 개선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들의 재활뿐만 아니라 일자리 확보를 돕고, 교회 안팎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지역 복지 단체와 협력하여 돕는 예배와 섬김이 통합된 사역을 실시한다. 이를테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식탁을 교인들의 헌금으로 새로 제작하고, 교회와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시혜적인 차원에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 집안일을 돕고, 장을 같이 본다든지, 영화나 수목원 등을 같이 가서 함께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예배와 섬김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환경주일의 경우는 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환경 문제, 특별히 교회가 위치한

12) 김한호, “춘천동부 디아코노스가 간다” 『목회와 신학』 제297권 (2014, 3), 112-113.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설교에 반영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올바르게 가꾸기 위해서, 지역에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시된다. 또한 환경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녹색리본을 착용하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여름철의 경우 넥타이를 매지 않음으로서 냉방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의 실천 가능한 활동을 펼친다. 이와 같은 봉사가 단기적, 감정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디아코니아 학교 등을 통해 봉사의 이론과 실재를 교육하며, 봉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회는 섬김의 장을 더욱 확장하여 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봉사의 내용은 도움을 주는 자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자를 물품과 금전으로 또는 확실적인 방법으로 돕는 것에서 벗어나 함께 장을 본다거나 영화관이나 음악회 그리고 식물원 등에 함께 가고, 집안일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돕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봉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예배와 실질적인 봉사의 통합을 통해 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탈권위주의적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성숙한 교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와 같은 디아코니아 예배와 섬김의 통합을 통해 지역 사회를 섬김으로서 교회의 대사회적인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2) 성만찬 문제에 관한 대안

초대교회는 신약성경의 첫 책이 기록되기 이전, 약 30여 년 동안 주님의 만찬을 행해 왔다.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 책에 기록된 형태로 주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떡을 떼는 일은 계속 되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행 2:46) 것을 계속 했다. 당시 삶의 공동체는 식사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하느냐는 곧 자기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었기에 오늘날보다도 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식사 자리에 늘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이다.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죄인들,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 이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 아픈 사람과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 먼 자, 눌린 자 등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하셨다. 이 식사의 자리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디아코니아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목회현장에서 나타나는 성찬의 자리는 어떠한가? 한국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 주제는 인의론(認義論)이다. 이의 성서적 근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씀이다.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 섬김의 행동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성찬식은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죄를 용서받는 것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졌고, 이는 반쪽짜리 성찬식이 한국교회 안에 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초대교회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예배 요소는 ‘공동식사’이다. 이 공동식은 대체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제 1부의 식사는 전체 교인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공동식사 시간이다. 지금의 'Potluck'처럼, 교인들이 각기 가정에서 음식을 하나 둘씩 준비해와서, 공동식사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이 공동식사를 초대교회에서는 '아가페 식사'라는 뜻에서 'Agape Meal' 혹은 '사랑의 식사'라고 불렀다.

제 2부의 아가페식사를 할 때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회상했고, 또한 감사했으며, 떡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주는 실천을 보

여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주인이셨다는 점을 항상 잊지 않았다. 한 마디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회상했으며, 예수님께서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식사를 하고 이어서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의 만찬(성찬)을 함께 행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3: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교제’나 ‘교통’은 같은 말인데 바로 ‘코이노니아’(Koinonia)를 의미한다.

또한 디아코니아란 단어 자체가 식사할 때 손님에게 하는 행동에서 나온 단어이다. 디아코니아를 번역하자면 “식탁에서 시종들다”이다. 식탁에서 시종들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섬김의 모습이다. 예를 들면, 손님을 초대하는 과정, 인사하는 과정, 발을 씻겨주는 과정, 어떤 의자에 앉으라는 과정, 음식을 갖다 주는 과정, 그리고 음료수를 주는 과정이다. 원래 이러한 만찬의 자리에서 식탁의 주인이 높은 사람이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자기는 섬김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고 있다.¹³⁾ 식사공동체는 봉사의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 성찬식에서 사람들은 치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그것은 예수의 공동체 식사 전통 안에서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멀리서 지켜 본 죄인들, 문지기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식사할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거기서 빵과 잔에 대한 말씀이 주님의 마지막 식사를 의미한다. 이 의미는 공동체 식사가 끝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이처럼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목회자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전 10:16).

“누가 더 높으나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종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눅 22:27)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섬김’과 ‘성찬’은 서로 나누지 말고 같이 행해져야 한다. 성찬식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미도 있지만 서로 섬기는 의미도 담겨있다. 사도행전 2:42에서는 성찬식과 섬김이 구성 요소로 되어있다. 주님에게 받은 은사를 서로 나누는 것이 섬김이다. 한국교회는 이제껏 디아코니아의 봉사적 측면만을 강조하였으나 디아코니아는 우리의 성례전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반쪽 복음, 반쪽 성찬식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과 성찬이 디아코니아의 회복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춘천동부교회의 성찬식은 대다수의 한국교회 목회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신칭의’(以信稱義, Justification by faith)에 치우친 엄숙한 성찬식을 지양하고 그 본래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식탁에서 섬기는 자로서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하시고 이들을 섬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예로 탈권위주의적 디아코니아 성만찬을 이루기 위해 성만찬을 할 때 모든 교역자와 장로들이 앞치마를 입고 성만찬을 집례한다. 그리고 성만찬 집례시 장애인들과 몸이 불편한 분들이 먼저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디아코니아 정신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란 단어는 식사할 때 “식탁에서 시종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춘천동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찢겨진 떡과 부어진 잔을 통해 뿐만 아니라 성찬 위원들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 보게 된다.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원래 성찬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게,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소명을 받고 세상으로 돌려보내어지게 된다.

13) 한국디아코니아신학회, 『디아코니아와 성서』 (서울: 한들출판사, 2013), p. 284.

3) 찾아가는 당회

춘천동부교회의 당회는 봉사당회로서 "찾아가는 당회"이다. 당회에 앞서 모든 당회원들이 섬김을 필요로 하는 곳을 먼저 찾아가서 봉사한 후 당회를 여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운영이 당회원들의 정치력이나 권위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 디아코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곳을 먼저 살핀 후 찾아가 봉사함으로써, 탁상공론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디아코니아 사역이 이뤄짐과 동시에,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당회원들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당회원들 간의 갈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하는 목회적인 효과도 발생한다.

4) 디아코니아 학교

디아코니아 학교는 춘천동부교회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으로서 이론과 실재가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으며, 성경공부는 많이 하지만 이것이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현장에 연결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성경공부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성경공부와 섬김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삶이 섬김의 삶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확립하고, 이를 단계별로 교회와 사회 가운데서 실천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백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성숙한 디아코노스로 세우는 데에 디아코니아 학교의 목적이 있다.

디아코니아 학교를 통해 춘천동부교회의 핵심인 디아코니아 목회 비전을 전 교인이 공유함으로써 목회 철학이 목회자와 당회원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역이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 가운데 수평적으로 분산되는 성숙한 교회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총 1 단계에서 3단계까지 이뤄진 디아코니아 학교 중 1단계는 특별히 새가족들을 위한 과정으로서 섬김을 받기만 하는 기존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섬기는 주체로서 거듭나게 하는 디아코노스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 10주 과정(새가족 양육 4주 + 디아코니아학교 1단계)을 통해 새가족은 교회 등록과 함께 봉사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총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디아코니아 학교를 수료한 교인들에게는 디아코니아학교 지도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디아코니아가 교회 교육의 영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2. 디아코니아를 통한 한국교회의 외부적 대안

1) 디아코니아 세미나

춘천동부교회는 교회 내 봉사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 디아코니아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지만, 주목할 점은 디아코니아 세미나가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의 봉사 기관 및 대학, 관공서 관련자 등도 강사로 초청한다는 것이고, 이론적인 면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인 봉사의 방법들을 소개하며, 세미나 후에는 이의 근본이 되는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또한 춘천동부교회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선교, 장애인, 새터민, 농촌, 민관협력,

다문화 등에 관한 이 시대의 관심 주제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디아코니아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자료집으로 만들어 한국교회와 신학교에 소개하는 것도 춘천동부교회 디아코니아 세미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2014년의 경우 지난 6월 제3회 디아코니아 세미나의 주제를 ‘디아코니아와 농촌’으로 정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교회는 2014년 7월 ‘찾아가는 농촌교회와 함께하는 예배’를 기획하여 우리교회 섬김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강원도(강원노회)내 농촌교회 5곳을 선정하여 각 교구별로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역을 우선 시작하였고 올해(2016년)로 3년째 계속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교회는 농촌교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여 농촌교회와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하고 있다.

디아코니아 세미나를 교회 내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학생 교육과 목회자 재교육을 위해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제1회 디아코니아 목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춘천동부교회는 한국 교회에 디아코니아를 소개하고, 디아코니아 예배 및 성만찬, 디아코니아 학교 및 디아코니아 성경교재를 각 교회에 보급함으로써 디아코니아의 정신과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도록 힘쓰고 있다.

2) 상호협력의 디아코니아: 도농협력과 민관협력

춘천동부교회는 지난 2014년 6월 제3회 디아코니아 세미나의 주제를 ‘디아코니아와 농촌’으로 정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었다. 이를 바탕으로, 춘천동부교회는 매년 6월 마지막 주일에 ‘찾아가는 농촌교회와 함께하는 예배’를 기획하여 춘천동부교회 섬김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강원도(강원노회)내 농촌교회 5곳을 선정하여 각 교구별로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역을 우선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춘천동부교회는 농촌교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여 농촌교회와 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교회의 ‘찾아가는 농촌교회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하여 디아코니아적인 지역 섬김의 실례를 제시해 본다.

① 도농협력

오늘날 한국의 농촌교회는 농촌사회의 급속한 해체와 함께 인구수 감소, 경제적 수익 감소 등의 이유로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다수의 교회가 존립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도시·농촌교회 간의 양극화 상황은 교회에게 선교적 측면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농촌교회 간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 1960년대 이래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급속한 교회성장을 이룬 한국교회는 사실 농촌교회를 모판으로 하여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도시교회에게 신앙의 본향인 ‘농촌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다.

2014년 7월, 춘천동부교회는 “농촌교회와 함께하는 예배”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강원도(강원노회)내 농촌교회 5곳을 선정하여 각 교구별로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교회를 위한 기도 및 조사를 시작했다. 농촌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새벽기도회 시 기도하면서 본 사역의 취지를 이해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교회를 조사했다. 그리하여 방문 대상에 적합한 5개의 교회와 연결되었다.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약 한달 전에 농촌교회 담임목회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역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

예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서로 의논하여 정했다. 특히 방문 교회의 예배시간, 장소, 특성 등을 최대한 존중하여 방문 시간과 인원 등을 함께 조율하도록 한다. 또한 방문 전 교구별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방문교회를 소개하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한다. 농촌교회를 방문했을 때 교구별로 방문한 농촌교회에 가서 담임목사님으로부터 교회가 위치한 지역 소개와 함께 교회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때 농촌교회의 실제적인 고충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진다. 이를 통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향후 농촌교회를 위하여 본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이후 본교회 성도들은 농촌교회 주일 오후(저녁)예배를 함께 드린다. 예배는 방문교회에서 인도하며 설교도 농촌교회 담임목회자가 담당한다. 이는 사역의 목적이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섬기는 데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강의와 설교에 대한 감사의 헌금을 공식적으로 농촌교회에 드린다. 예배 후에는 성도의 교제 시간을 가지는데, 지역 특산품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기도제목을 나누기도 한다. 본 교회에서는 향후 더 좋은 섬김의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교구별로 방문보고를 하기도 한다. 이를 통하여 농촌교회 및 자립대상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과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연결된 도농교회 간의 협력은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된다.

농촌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시행한 첫 해에 ‘강원노회 자립대상교회 어린이 초청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여 농촌교회들이 자립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여름성경학교를 통합적으로 개최했다. 청년부와 협력하여 2014년 방문했던 농촌교회에서 청년 40여명이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아우리치)을 겸한 여름수련회를 실시하여 교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또한 본 교회에서 주관하는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에 농촌교회의 목회자를 강사로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도농 교회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했다. 그리고 본 교회가 다음세대의 청소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한 ‘글로벌디아코니아학교’(Global Diakonia School) 프로그램에서 학생 일부를 농촌교회 목회자 자녀 및 출신학생으로 선발했고 이들에게 해외선진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농촌교회의 목회자 자녀와 농촌지역 내 학생을 매년 일정하게 선발하여 디아코니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방문한 5개 농촌교회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교인들이 동참한 헌금으로 성탄선물을 준비하여 전달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도시교회의 일회성 농촌 섬김(디아코니아)을 겸한 행사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예수님의 섬김의 근본 정신인 ‘디아코니아’(Diakonia) 정신을 바탕으로 농촌 봉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치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교회는 일방적으로 농촌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니다. 농촌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시교회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성숙한 교회봉사자(디아코노스, Diakonos)로 거듭나도록 동기부여하고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② 민관협력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관협력을 통한 디아코니아의 확대도 중요하다. 기관과 관공서와 협력하면 교회가 가진 인적 자원과 기관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연동해서 더 효과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 현재 춘천동부교회는 연말 구제 및 어린이 성탄선물 증정을 주민센터와 복지관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춘천지역의 특성상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회 자원봉사들이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정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교회와 시청과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섬김의 예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로 긴급재

난구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훈련된 교인들이 신속히 대피 현장에 투입되어 대피 안내나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도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춘천동부교회에서는 주일 대예배 시 긴급화재 대피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둘째로 지역장애인을 위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춘천동부교회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토요 학교를 매년 2학기씩 열고 있는데 춘천시 장애인 부모회와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로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공간 역시 민관협력으로 확보할 수 있다. 춘천동부교회는 지역주민 및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한 다문화도서관을 2015년 10월 개관한 바 있다. 춘천에 작은 도서관이 여러 곳 있지만 종교단체가 시립도서관과 협력하여 이 공간을 확보한 곳은 없다.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을 민관협력으로 이뤄낸 것이다.

특히 춘천동부교회는 노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늘푸른대학,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을 섬기는 소망반을 운영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단법인 춘천동부디아코니아를 발족하고 이 법인의 이름으로 노인복지관 위수탁 운영을 맡게 되었다. 올해 5월부터 정식으로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노인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합하여 지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관협력은 교회 상황과 환경에 맞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민관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역이며 이를 위해 교회는 여러모로 적용점을 찾고 연구해야 한다.

3)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센터

자원봉사 센터는 한마디로 그 지역사회의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찾아 지원하고 조정하여 지역사회를 개방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곳이다. 자원봉사 센터는 분명 사회복지 분야의 한 기관, 단체이고 따라서 자유 민주사회 내에서의 사회복지의 일차적으로는 시장경제의 기능과 같이 자율에 맡겨 운영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춘천동부교회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2017년 안에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자원봉사 센터의 필요성은 춘천동부교회가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을 수탁하고 난 후 더욱 대두되었다.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 아무런 준비 없이 봉사를 했던 봉사자들과 기관들에게 자원을 개발해 주고,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봉사자 파견과 조정 및 정보 제공 그리고 국가 정책 홍보등의 역할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센터가 늘어나고 활성화되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고 그야말로 나눔의 정신 곧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계층이나 연령층의 폭이 넓어지고 활용처가 다양해져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유기체적인 지역공동체가 될 것이다.

V. 결론

그동안 한국교회는 사회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여 왔고, 사회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던 때도 있었으나 오늘날은 사회로부터 여러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위기는 먼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내부적 요인 중 필자가 우선으로 보았던 부분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권위주의이다. 이러한 권위주의 즉 직분의식으로 인해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 예배 안에서도 권위주의가 난무하다. 대표적으로 목회자의 설교와 성만찬을 들 수 있다. 외부적 요인은 사회적인 요인으로써 한국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그리고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부적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한국교회 위기를 탈권위주의적 섬김을 통해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는 ‘디아코니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인 디아코니아(Diakonia)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부, 외부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디아코니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것이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디아코니아가 철저히 성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성서가 말하는 봉사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목회 현장에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디아코니아를 교회 안팎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많은 교회들이 당위성은 알지만 방법을 몰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를 나눔으로써 디아코니아 실천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활동에 상응하도록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디아코니아는 실천되어야 한다. 목회현장이 바로 디아코니아를 훈련받고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지역이 살아나고 변화하여야 한다. 디아코니아는 선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근본정신이다.

교회와 사회의 관계는 목회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이며, 이는 신학의 한 분과인 디아코니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디아코니아, 섬김의 현장은 교회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더욱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할 수 있기에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디아코니아학은 더 큰 관심을 가져왔다. 이 양자의 관계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디아코니아학의 입장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디아코니아와 사회가 만나는 지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아코니아와 사회복지의 근본정신에 대해서는 이 둘이 완전히 다르다는 입장에서부터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양태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복지의 70%를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교회의 디아코니아와 사회복지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여러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필자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의 대안으로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사역하고 있는 춘천동부교회를 소개하였다.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적인 섬김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섬김 곧 디아코니아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양적인 성장보다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를 중심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를 통해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회는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추구하는 곳이다. 교회가 디아코니아, 즉 섬김을 통해 진리와 진실을 말하고 이를 기독교 사회복지를 통해 실천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사회가 교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VI. 참고문헌

1. 국내서적

- 김명옥. 『공홀, 하나비전교회 장애인 사역 20년 자료집』. 서울: 한들출판사, 2011.
- 김옥순. 『디아코니아학 입문』. 서울: 한들출판사, 2010.
- 김한호. 『장애인과 함께하는 디아코니아』. 서울: 한장연, 2009.
- 김한호. 『디아코니아와 예배』. 서울: 서울장신대학교 디아코니아연구소, 2016
- 박성태. “장애인 통합목회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06.
- 한국디아코니아 신학회. 『디아코니아와 성서』. 서울: 한들출판사, 2013.

2. 국외서적

- Schmemmann, Alexander For the Life of the World. 이종태 역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 서울: 복있는 사람, 2008.
- Schmemmann, Alexander. The Eucharist. 김아윤, 주종훈 공역. 『하나님나라의 성찬』. 성남: 새세대, 2012.
- White, James.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g. 김운용 역.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3. 자료집 및 보도자료

- 국민일보, 2004. 1. 8 기사.
- 시민일보, 2011. 5. 30 기사.
- 한국일. “선교와 디아코니아” 『춘천동부교회 디아코니아 세미나 2013 자료집』. 춘천: 춘천동부교회, 2013.

4. 논문

- 최정희,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부역할에 관한 연구”, 경희대석사논문, 1997, p.45

■ 토 론 문

김 성 철 교수
백석대 보건복지대학원

I. 여는글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로 대안을 찾는 목회현장을 발표하신 김한호 목사님의 발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한호 목사님의 발제문이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목회적 범위에 있고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무장된 교회가 지역 사회 속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한국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내부적 요인으로 예배에서 직제와 성만찬 중심으로 본 내용 중 한국교회 설교자의 위치와 교회의 권위적인 섬김의 모습이 현재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한 것과 성만찬의 문제에서 한국교회는 코이노니아와 섬김이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성만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필자도 공감을 가집니다.

또한 부정적인 교회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의 현실과 외부적 요인인 한국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문제를 교회의 본질인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한국교회 위기극복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II. 한국교회 위기극복을 위한 제언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4년 한국인 종교 분포는 불교 22%, 개신교 21%, 천주교 7%로 불교 신자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비신자가 3대 종교 중 가장 선호하는 종교는 불교였고, 가장 선호하지 않는 종교는 개신교였다. 2004년 조사에서는 불교 37%, 천주교 17%, 개신교 12%였는데 2014년에는 불교 25%, 천주교 18%, 개신교 10%였다. 갈수록 한국교회 신뢰도와 선호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1. 황금제일주의(mammonism),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성공지상주의의 위기

한국교회 정체성 상실은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라는 신학을 맹종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루터에게로 돌아가서는 한국교회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다. 한국교회 정체성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한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야고보에게로, 그리고 어거스틴에게로 돌아가야 회복될 수 있다. '행함 있는 믿음'의 교회 살리기 운동을 "제2종교개혁"(second Reforma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약 2:17)이라고 말한 것처럼 행함 없는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행함 없는 교회도 비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어가고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는 새로운 구원론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2. 저출산·고령화·경제 등 '상황 변화'와 '교회다움 상실'의 위기

성경이 말하는 근본 해법은 내적으로 교회다움을 회복해 교회와 교인을 회복시키고, 외적으로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붙잡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3. 기독교 정체성회복

한국교회는 결국 세속가치와 세속권력의 포로가 되고 말았고, 그로 인해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것이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구체적으로 (1) 개인구원의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의 전환 (2) 속죄론 중심의 기독교론에서 통전적 예수론으로의 전환 (3) '오직 믿음'의 신앙에서 '예수 따름'의 신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 민간 지역사회복지 안전망으로서 교회의 역할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의 자살사건을 통해서도 그 심각성을 가늠해 볼 수 있듯이 누군가가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마저 포기한 채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복지소외계층을 돕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민간사회복지 안전망으로서 지역사회 내 교회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교회는 정부나 지자체의 공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과는 달리 종교적인 신념에 가치를 둬으로써 보다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 교회의 규모에 따라 사회복지실천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교회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집단은 노인(42.5%)으로, 이는 급격한 고령화를 보이는 한국사회에서 교회 역시 노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6.2%), 다문화가정(5.0%), 여성(1.2%)은 국가의 복지영역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회복지영역에서도 소외된 계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회의 복지활성화를 위한 교육, 소외계층에 관한 자료와 다양한 서비스, 복지예산의 확대, 전문조직 구성, 지역사회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섬기는 교회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는 단적으로 한국교회가 사회적 공신력과 신뢰성을 상실한데 그 원인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추락할 대로 추락한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궁극적인 해답이 바로 섬기는 교회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즉 교회가 종의 자세로서 사회를 섬기는 디아코니아적 교회로 전환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디아코니아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무너진 사회적 공신력과 신뢰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실천원리와 철학, 그리고 분명한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철(2017). 「기독교사회복지론」. 21세기사.

김자경(2015). “민간 지역사회복지 안전망으로서 교회의 역할 연구”. 총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정원범(2016). “존 하워드 요더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의 신뢰도 위기와 그 대안”. 한국기독교학회.

최무열(2015). “한국교회의 위기 극복과 대사회적 신뢰성 회복방안으로서의 디아코니아 활용에 관한 소고”. 한국실천신학회.

최윤식, 최현식(2015). 「2020 - 2040 한국교회미래지도 2」. 생명의밀씀사.

한국교회기 직면한 위기를 내부적 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대안으로 디아코니아를 제시한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또한 춘천동부교회의 사례를 제시해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한국교회의 당면위기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요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의미있는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시의 근거가 발표자의 경험을 기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 한국교회의 위기와 관련된 기존 연구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일부교회의 문제인지 교회 전반적의 지배적인 문제인지의 일반화와 관련된 근거 또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제자께서 사회봉사를 교회 성장의 도구로 인식함으로써 야기된 한국교회의 위기를 분석한다고 하였으나 사회봉사는 교회와 성도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명”의 실천인데 이러한 섬김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양적인 숫자에 치중하고 있는 목회자의 목회철학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부 교회의 경우 교회의 양적인 성장의 도구로 사회봉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교회의 대사회적 섬김의 실천으로 봉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교회의 직분

다음으로 교회의 직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교회의 직제인지 직분인지 혼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직분을 직제로 생각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겠으나 이 직분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분자는 겸손(막10:42~45), 충성된 자세(고전 4:1~2), 탁월함(출 18:21)으로 교회와 성도를 목자의 심정으로 청지기처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봉사에 있어 이 직분이 출선적인 섬김의 동인이 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사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직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직분에 대한 본질과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저출산 고령화의 기회

한국교회가 직면한 환경적 요인으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의 위기에 국한해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인구 고령화는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섬김의 기회, 그리고 지역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역할부여의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령화로 인해 교회의 재정적인 위기, 교회학교 운영의 제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일부 교회의 문제라기 보다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이며, 따라서 한국 교회가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에 주축이 될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4. 교회의 사회복지

또한, 연구자가 제시한 내용의 지엽적인 것이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70%를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통계가 정확한 것이지요? 교회의 봉사는 비공식 영역의 섬김이고 사회복지지는 공식적인 영역일 수 있는데, 과거에는 많은 공식화된 민간사회복지에서 기독교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현재는 카톨릭, 불교 등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의 측면에서는 분명 위기일 수 있습니다.

5. 디아코니아의 사례

디아코니아의 예로 춘천동부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면서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지역교회의 책임있는 공동체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구조화하고 체계화된 틀로 제시되었다면 좋은 정보와 사례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의 교회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의 문제가 교회 안 성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통계연감이나 욕구조사에 기반하여 지역교회의 사회적 섬김의 방향과 내용을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이 많은 지역, 독거 어르신 밀집지역, 저소득 빈곤지역 등과 같이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지역사회의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성의 회복에 보다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환경, 교육, 경제, 문화 등의 이슈에 얼마만큼의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단체와 지자체가 하는 일을 중복하거나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역할에 우선적으로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표자께서 탈권위주의의 직제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부분으로 교회의 직분이 결코 직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직분이 직제화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청지기의식의 직분 수행이 바로 디아코니아의 실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 교회의 섬김의 본질

춘천동부교회에서 여러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장애, 환경 등의 이슈에 관한 논의가 이후 설교에 반영된다고 하였는데, 거꾸로 말씀 안에서의 이러한 이슈에 대한 것이 생활에 반영이 되도록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권위주의는 지양해야 하지만 각 직분의 고유 기능은 존중되어야 그 직분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직분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섬김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부언을 하자면, 필자께서도 교회와 사회의 연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교회가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어떠한 지역사회의 현안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는 결국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그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아코니아 정신으로 사역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라는 필자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 먼저 이웃으로 섬겨야 할 지역사회의 주민은 누구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승 열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Dr. Theol.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교회는 130여년의 한국개신교회의 역사상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들 하면서 나름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일들이 근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교회의 성장문제만을 놓고 보면 양적 성장이 한참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성장의 둔화현상, 정체현상, 감소현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교회의 위기를 논해왔었다. 그때만 해도 교회성장제일주의라고 일컬어졌던 교회성장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심각한 불안증세 혹은 위기증세를 보면서 교회와 목회자 신학자들은 신학적 성찰과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사회학자나 종교사회학자들을 통해서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통계의 분석과 설문지 등의 조사를 통해서 일반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회의 일반인들의 반응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던 경향이 많았다.¹⁴⁾ 그 원인분석한 내용 중에는 교회의 사회봉사가 부족했다는 점이 언급되었고 또한 이런 분석을 통한 극복을 위한 대안제시에도 당시 한국교회의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사회봉사와 연관한 대책강구들이 많이 언급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회봉사(디아코니아)는 단순한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적 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었다.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에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교인수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별히 다음세대를 기대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되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수는 더더욱이나 감소되어 교회학교가 아예 폐쇄되어 없어지거나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통계적으로는 전체 교회의 절반 이상이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예장(통합) 총회는 3년 전부터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동반성장, 균형성장, 지속성장을 강조하면서 5년 동안 총회적 차원에서 꾸준히 성장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다루기로 결정하고 계속해서 전략세미나를 개최하거나 훈련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도 하는 투자와 관리를 전략적으로 해오고 있다.

14) 김영한, “성장둔화에 대한 요인분석과 그 대안에 관한 논구”,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한국교회 성장둔화 분석과 대책』, (송실대학교출판부, 1998), 1-58.: 이 글에서 분석되어진 교회성장 둔화의 원인으로서는 교회 정체성의 약화, 영성의 쇠퇴, 자기중심적인 교회, 교회의 세속화, 내실적 성장에 대한 신학적 정립 부재, 기업식 교회운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 결어, 은둔 공동체, 교회간의 단절과 생존경쟁, 교회 내 신분 계층화, 권징과 권위를 상실한 교회, 세상문화에 뒤처지는 비전 없는 교회, 말씀 궤도를 벗어난 감정적 부흥회, 기도원 운동의 영적 변질, 신학교 난립으로 인한 목회자의 자질 결핍, 선교단체의 선교열정 냉각 및 도덕성 쇠퇴, 명분 없는 교단분열과 반목질시, 개교회의 분열과 불화, 세속주의 물결, 왜곡된 신학, 예언자적 역할 외면, 사회적 신뢰 실추, 도시빈민 선교정책 부재, 사이버 종파로 인한 불신초래 등 다양하게 분석되어진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다.

교회위기 문제와 연관해서는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봉사/복지와 연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봉사단이 주최하여 디아코니아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한국교회봉사단은 2007년도 발생했던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때에 예장 총회사회봉사부와 함께 대대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 하고 뒷받침 하여 엄청난 역사와 경험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적 사명을 통한 교회갱신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왔다. 매5년마다 기독교 사회복지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디아코니아와 연관한 국제적인 세미나를 개최해 왔고 교회의 사회봉사와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해 왔다.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이러한 뜻깊은 디아코니아 포럼을 새롭게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교회문제의 인식과 위기극복을 함께 고민하고 또한 대안적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봉사/복지라 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제인 디아코니아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교회로의 개혁을 위한 동기유발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특별히 금년은 독일교회의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5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서 더욱이 뜻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교회의 종교개혁은 루터의 디아코니아에 대한 재발견과 신학적 반성 그리고 95개조를 통한 반박문에도 디아코니아적 사명과 의미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일 개신교회의 역사는 그 이후 종교개혁의 유산으로서 디아코니아신학의 발전과 디아코니아적 실천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도 정통주의신학이 한때 기세를 떨치면서 루터와 칼뱅의 신학과 성경주석을 절대화 하는 신학의 정경화가 있었으며 율법주의적 신앙, 스콜라주의적 신앙, 경직된 신학과 신앙이 문제가 되었었다. 종교개혁운동의 역동성을 상실했던 보수적 신앙을 반성하면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었고 이 경건주의 운동의 역사와 흐름 속에는 빠지지 않고 디아코니아 사회봉사와 선교운동이 함께 발전해 간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칼뱅의 기독교강요나 성경주석이나 설교와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강조되어진 디아코니아를 한국의 장로교회는 잘 알지 못했고 잘 가르치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신학대학교의 커리큘럼에는 디아코니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김한호 목사의 발제문에 대한 논란

독일에서 디아코니아를 전공했으며 독일교회와 미국교회에서 각각 10년씩 목회자로서 목회도 했던 디아코니아 학자인 김목사는 춘천동부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서울장신대학교 겸임교수로서 디아코니아를 교수할 뿐만 아니라 서울장신대 디아코니아연구소장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개교회의 목회는 디아코니아적인 목회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목회의 요소를 섬김의 자세와 정신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내면서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정신과 의미는 그의 목회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또한 디아코니아 신학자로서 신학화한 자료들을 개발해 내고 훈련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적용해 온 다양한 자료들을 타교회의 목회자들에게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점점 더 많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김목사님의 발제는 매우 의미심장한 발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짧은 지면

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위기진단이나 대안을 망라해서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느낌이 있고 또한 대안제시 자체가 본인이 경험해 온 목회현장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어서 경험을 통한 가능성과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타교회에서도 그 가능성을 더욱 크게 찾으며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발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김한호목사의 발제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의 탁월한 디아코니아적 목회의 감각과 적용의 훌륭한 점을 특별히 강조하여 칭찬과 격려를 하고 싶으며 그러한 창의적인 시도와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상을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기본적으로 예배를 중시 여기면서도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통합적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생각과 적용과 과정을 감동적이다. 특히 성찬예식에 어느 누구도 접목하지 못했던 디아코니아적 성만찬의 모델은 신학적 성찰과 감수를 거치고 교회내 중진들과의 논의와 세미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지혜롭게 진행해 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느끼는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더 큰 확신과 자부심 자랑으로 자리잡아 오고 있고 이후 많은 교회들과 신학생들이 벤치마킹과 연구의 대상으로까지 여기며 본받을 대상이 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점을 한국교회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목회자의 목회철학이 이만치 중요하고 신학적 확신과 연구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목회자의 신학과 교회의 신학정체성 신앙정체성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목회자의 신학과 철학 이상으로 교회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신학적 이해와 훈련이 목회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 당회원들이나 교회의 중진들과의 갈등관계를 전환하여 조화 있는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키며 유지하는 것은 목회자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소신과 연구와 이해와 설득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 사이에 신학적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면 갈등도 극복하고 새로운 시도와 갱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성도들이 도리어 이런 교회의 교인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며 자랑하게 되고 애착심을 갖게 됨으로써 더욱 헌신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한국교회의 역사적 과정을 통한 성찰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의 위기의 원인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로 근본주의 신학적 경향의 영향이다. 발제자의 논문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초기선교사들의 근본주의적 경향은 한국교회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근본주의는 전천년설에 근거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근거하여 발전했고 비관적인 세계관에 기초하여 이 세상과의 단절을 강조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경향을 보였다. 임박한 종말론이 중심이 되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1906년부터 1909년까지 내한한 미국선교사는 모두 135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무디의 학생자원운동(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모두 81명으로 60%를 차지하였다.¹⁵⁾ 이 영향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으로 미치고 있어서 사회책임적 사회참여적 사회봉사적 신앙을 가지게 하고 실천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이가 길선주 목사라 할 수 있다.

둘째로 내한 선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정책이다. 초기 내한선교사들은 한국에서의 선교활동

15) 홍상태,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 신학운동과 내한선교사와의 관계고찰-세대주의 종말론을 중심으로”, 생명신학협의회 생명신학연구소 편, 『오늘의 생명신학』 제2집, 신앙과 지성사, 2015.

에 있어서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 중의 하나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치문제나 사회문제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강조했고 금했다. 어떤 점에는 아예 정치문제는 언급을 금한 것이어서 중립정책이 아니라 탈정치화원칙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1905년 7월 29일에 미일간에 맺어진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약’(Katsura-Taft Secret Agreement)이 중심이 되었다. 1924년에 가서야 비밀이 해제되었지만 이를 통하여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생겼고 선교사들에 의하여 한국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강요당했던 것이다.¹⁶⁾ 그 영향의 결과 지금까지도 한국교회는 정치문제나 사회문제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하거나 터부시 여기는 잘못된 전통을 이어오거나 강요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사회봉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디아코니아 신학교육의 부재이다. 신학교에서의 목회자 훈련과정에서의 커리큘럼에 기독교사회봉사 혹은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과정이 설치되고 교육되었다면 건강한 신앙과 신학의 정체성이 담보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역사적 과정에 훌륭했던 모델도 발견된다. 즉 평양의 장로교신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했던 콕안런(Charles Allen Clark:1878-1961) 선교사는 실천신학을 담당해서 목회학을 교수하면서 ‘교회사회사업’¹⁷⁾이라는 과목을 가르쳤고 직접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글로 된 한국에서의 최초의 사회복지관련 서적으로 인정된 책을¹⁸⁾ 저술하여 출판하여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가 발견한 이 책에는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다양한 교회의 사회사업적 과제로서 디아코니아 영역이 서술되어 있다. 아쉽게도 이러한 좋은 전통과 시도가 계승되지 못하고 일제의 식민지 암흑기를 거쳐서 신학교육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넷째는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성장제일주의가 강조되었던 점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회성장도 함께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었고 신학적인 성찰과 검증이 무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양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교단적 차이나 교리적 이해가 부족해도 무분별하게 도입하였고, 이는 보수나 진보를 구별하지 않았다. 이는 특별히 개교회주의가 발달한 한국교회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현상이었으며, 또한 교단이기주의적 경향도 함께 더불어 영향을 미쳤다. 경제성장과 함께 물량주의적 번영신학이 함께 강조되었고 물질적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맘몬이즘적 요소가 교회내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자연이 내적 성숙은 뒤로 밀렸고 전도 중심의 복음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자리를 잡았다. 한편 해외의 세계교회의 복음주의적 움직임은 로잔언약(1974), 마닐라선언(1989), 케이프타운서약(2010)¹⁹⁾ 등의 중요한 문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갈수록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봉사적 과제를 더욱 중요시 여기고 고백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보수적 복음주의적 교단들은 너무나 이런 점에서 보수적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영적 구원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일반 성도들이나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교회와 성도들을 불신하며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6) F. A. McKenzie, 『The Tragedy of Korea』, London 1908, 309.

17) 콕안런, 『교회사회사업』, (서울, 조선예수교서회), 1932.

18) 일반사회복지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범수 교수를 통하여 검증되었다.

19) 2010년 제3차 로잔대회 공식문서 『케이프타운 서약』,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14.

3. 한국교회의 갱신적 차원의 대안적 제언

첫째로 교회의 본질적인 과제 중의 하나인 기독교사회봉사/복지(디아코니아)에 대한 관심과 신학교육 그리고 개교회에서의 훈련이 절실하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도 지도 훈련과 신학적 이해와 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기 위하여 모든 교단의 직영신학대학교에서의 커리큘럼의 과감한 조정과 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교회적 차원의 목회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하며 시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 예장 총회사회봉사부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1984년에 최초로 개발했던 사회선교지침서의 개발과 총회 채택 이후 꾸준히 목회자들을 위한 매뉴얼 혹은 핸드북과 같은 의미의 다양한 복지선교지침서가 개발되었고 공식적인 총회의 정책문서로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디아코니아 사회선교 지침서’도 개정판의 의미로 개발되었고, 자살에 관한 목회지침서 같은 것도 사회문제대책지침서도 개발되어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참여와 사회봉사에 관한 좋은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다.²⁰⁾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문서가 개발되어도 노회차원에서 적용되고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모델적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검증하면서 협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노력이 노회 차원에서는 매우 부족하며 개교회의 관심과 투자와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디아코니아적 목회 모델이 제시되고 개발되어야 하며, 사회선교적 차원에서 모든 교회가 마을목회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 개교회의 성도들의 수는 적어도 목회자는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마을의 모든 구성원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여기고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히 목회자와 교회는 지역사회의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며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고 섬겨야 할 과제들을 연구하고 시도하게 될 것이다. 예장총회는 내년도에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정했고, 마을목회 개념을 과감하게 총회적 차원에서 도입하고 적용하려고 포괄적인 교재를 연구 개발하는 일에 착수했으며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회봉사와 복지에 힘쓰는 교회가 결과적으로 선교적 열매와 효과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봉사와 선교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불가분리의 관계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봉사적 선교 또는 선교적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로 지역단위의 에큐메니즘과 초교파적인 에큐메니칼 디아코니아의 협력 네트워크와 활성화가 절실하다. 이는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봉사와 사회복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의식만 있고 정신과 철학적 가치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역사회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봉사와 재정지원과 위탁운영 형식의 복지시설 운영이나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와의 관계에서도 글로벌 지구촌시대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빈곤국가의 사회개발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파송과 재정지원으로 디아코니아적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시에도 긴급재해구호사역을 비롯한 중장기복구사업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필자가 섬기고 있는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나 대전에 있는 ‘기독교연합봉사회’ 같은 교단연합 차원의 에큐메니칼 디아코니아 연합기구들도 있으나, 지역에서의 교단 초월의

2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편, 『디아코니아 사회선교 정책문서 자료집』, (서울, 동연), 2016.

교회연합기관으로서의 사회봉사연합회 같은 네트워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개교회주의와 교단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사회적 경제개념의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 교회는 일반 사회의 자본주의적 기업의 특성이 적은 투자로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는 생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존엄한 권리인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으로 목적을 삼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으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조직화 된 기업활동도 적극적으로 디아코니아적 접근과 이해로 할 수 있다. 한국교회에는 이미 7년 전부터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며 필자는 수년 동안 운영위원장으로 섬겼던 경험이 있다. 총회에서는 생활소비자협동조합도 재건하여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개념을 가지고 섬기는 운동 또한 디아코니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교회의 경우는 국가와 교회가 연합하여 협력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디아코니아가 다양하게 실천되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교회의 디아코니아(Diakonie)는 중요한 6개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다섯째로 디아코니아에 대한 기본적 신학적 이해와 교육훈련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디아코니아적 신앙과 실천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한 건강하고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나 신앙은 경건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웃사랑의 계명과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어 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영생을 얻는 길이기도 하다. 비록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누구든지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인 것이다. 이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수행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최후의 말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종말론적 신앙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신앙고백적 차원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신앙과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디아코니아 관련 연구소, 아카데미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오랫동안 한국교회에는 디아코니아 신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없었는데 1990년대 말부터 독일에서 디아코니아신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귀국하게 되면서 2010년에는 한국디아코니아신학회가 결성되었으며 매년 기독교학회 내의 실천신학회의 디아코니아분과로 논문발표와 토론이 계속되고 있고, 개인적 차원에서 디아코니아연구소가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고, 신학대학교에 소속된 연구소 그리고 최근에는 법인에 속한 연구소도 개소되었다. 특별히 의욕과 사명적 책임의식을 가진 분에 의해 디아코니아대학이 개교한 바가 있고, 가을에는 예큐메니칼 디아코니아 아카데미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교단을 중심으로 개교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소와 아카데미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단 직영신학대학교에서 디아코니아신학을 커리큘럼화 하지 않고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경우만 선택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특이하게 디아코니아학과를 개설했던 학교도 있었고, 대학원과정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디아코니아과목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 아직은 미약한 상태이지만 미래적 전망으로 볼 때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와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교회들의 기독교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상의 문제이다. 교회들이 정부 혹은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게 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데 법적 근거 내에서만 가능하고 교회의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의 정신이 희박하여 운영상 기독교적 정체성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사회선교적 의미와 디아코니아적 의미와 가치를 살려낼 수 있으려면 직원들과 운영자들의 의식 속에 분명한 디아코니아 신학과 신앙적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교회적인 사회복지시설 혹은 센터의 운영이 개교회의 교회성장과 연관을 가진 의미부여와 기대 때문에 본질적인 섬김의 사역이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다. 섬김과 나눔의 정신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4. 나가는 말

기독교사회봉사/사회복지는 단순한 교회의 대사회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명 과제에 속하는 것이라는 디아코니아신학적 이해와 어느 누구라도 예외가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경건한 삶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 지는 것이다. 루터 또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한 바가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기념의 해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유럽의 종교개혁의 성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위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변혁적 노력은 기우리지 않는 듯 하다. 개혁교회의 갱신적 개혁적 성찰은 디아코니아적 자각과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디아코니아 포럼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시도라 할 것이다.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이며,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 할 것이다. 19세기 독일교회의 디아코니아와 사회선교의 선구자, 개척자, 아버지라 불리우는 요한 힌리히 뷔헤른(Johann Hinrich Wichern)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격변으로 인하여 생겨난 가난한 사람들 즉 프로레타리아계층의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 하였고 소외계층을 돌보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일찍이 장애인들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가 있는 교회다” 라고 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며 서로 섬기고 나누는 통합된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한 주님의 교회인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된 경건의 의미를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하는 참된 경건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약1:27)

